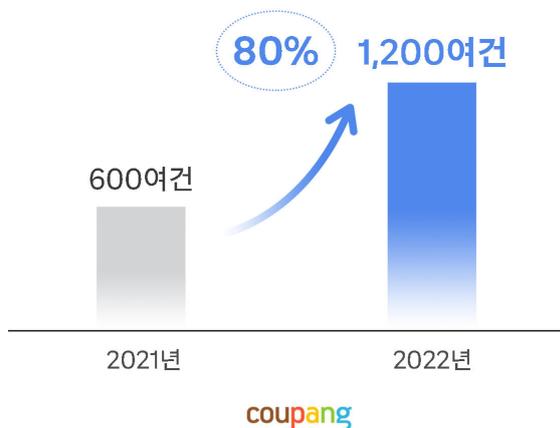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 특허 포트폴리오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 국내외 특허 1200건 이상 보유해

2023. 4. 13.

쿠팡 특허 포트폴리오 80% 이상 성장

*2022년 기준 (전년 동월 대비)



- 국내 신규 등록한 특허만 1년 내 약 270건 기록
- 특허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시스템 업무 효율 획기적 개선 고객서비스 향상 효과까지

2023. 4. 13. - 쿠팡은 2022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특허 포트폴리오가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물류, 쇼핑,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특허 포트폴리오를 늘려왔다. 지난 2022년에 쿠팡이 국내에 신규 등록한 특허만 약 270건에 달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등 해외 등록 특허까지 모두 합산하면 2022년 말 기준 12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전년도 말 기준 등록 특허가 6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불과 1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데에는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쿠팡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사내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며, 주기적으로 개발자나 창작자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내 문화를 바탕으로 누적된 쿠팡의 혁신 기술은 쿠팡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고객 경험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쿠팡은 물류센터 및 물류 시스템 관련으로 한정해도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유통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냈다.

고객에게 최단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 센터를 계산하는 ‘주문량 할당 시스템’, 동일한 배송지의 상품을 묶어주는 ‘싱글레이션 패키징 시스템’, 쿠팡친구의 효율적인 동선 관리를 돕는 ‘건물 출입구 가이드’ 등의 혁신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동시에 평균 배송 시간을 12시간까지 단축시키며 일석이조의 성과를 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꾸준히 특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신 기술을 개발 및 도입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와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지난해 준공한 대구 풀필먼트 센터의 AI·빅데이터 기반 물류 현장을 공개하고 그동안 쌓은 물류 노하우와 자동화 혁신기술을 통해 미래형 물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